

국제학술대회

유전체 시대의 Open Science와 공공의 이익 및 과학의 발전

●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주최: HUGO Committee on Ethics, Law and Society, the Human Variome Project,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현대에 이르러 과학의 진보로 인한 혜택을 모두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인간 유전체학 분야의 종사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까요?

Open Science는 이를 설명하는 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혁신의 가속화와 어플리케이션으로 변환의 효율화를 목표로 하며 지식의 자유로운 보급이라는 원칙을 특징으로 합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과학에 접근 가능하다는 생각은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워크숍은 글로벌 연구에 대한 윤리적, 법적 영향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 이 행사는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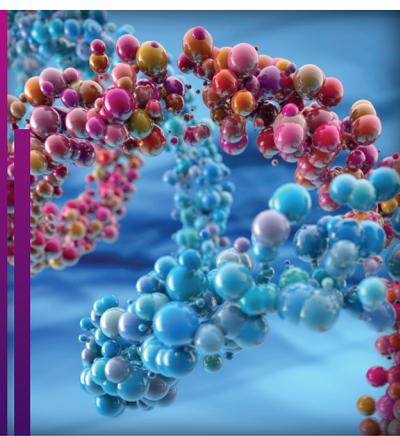
PROGRAM		장소: ECC B4층 삼성홀
09:00-09:10	Welcome Prof Kyung Suk Choi, Director of the Ewha Institute for Biomedical Law and Ethics (한국, 이화여자대학교)	
09:10-09:30	Introduction to 'Open Science' Assoc Prof Benjamin Capps, Chair HUGO CELS, Department of Bioethics (캐나다, 델하우지대학교)	
09:30-10:10	What is Open Science? Assoc Prof Yann Joly, Research Director of the Centre of Genomics and Policies (캐나다, 몬트리올대학교) Commentary by Prof So Yoon Kim, Director of Medical Law and Ethics, College of Medicine (한국, 연세대학교) Chaired by Dr Vicki Xafis, Centre for Biomedical Ethics (싱가포르, 싱가포르국립대학교)	
10:10-10:50	Why Do Open Science? Prof Ruth Chadwick, Distinguished Research Professor (영국, 카디프대학교) Commentary by Prof Catherine Mills, Monash Bioethics Centre (호주, 모내시대학교) Chaired by Assistant Prof Tamra Lysaght, Vice Chair HUGO CELS, Centre for Biomedical Ethics (싱가포르, 싱가포르국립대학교)	
10:50-11:10	Break	
11:10-11:50	Benefits and Evidence of Open Science Initiatives Helen Robinson, HVP and Nossal Institute for Global Health (호주, 멜버른대학교) Commentary by Prof Ingrid Winship (호주, 멜버른대학교) Chaired by Dr Owen Schaefer, Centre for Biomedical Ethics (싱가포르, 싱가포르국립대학교)	
11:50-12:30	Legal Challenges for Open Science Prof Won Bok Lee, Ewha Institute for Biomedical Law and Ethics (한국, 이화여자대학교) Commentary by Markus Labude, Centre for Biomedical Ethics (싱가포르, 싱가포르국립대학교) Chaired by Assoc Prof Tamra Lysaght, Centre for Biomedical Ethics (싱가포르, 싱가포르국립대학교)	
12:30-13:00	Panel Discussion Chaired by Benjamin Capps	

라운드 테이블

DTC (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 규제 샌드박스의 법, 윤리, 그리고 정치

● 2019년 4월 25일 목요일 오후 4시30분 - 6시

주최: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초기 개발단계의 혁신 기술이 4차산업시대의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지목받는 국내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의 수혜1호 기술로서 DTC 유전자 검사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학계, 업계, 의료계의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논란의 이유와 해결책을 법적, 윤리적, 정치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소: ECC B1층 144호	
Assoc Prof Benjamin Capps, Chair HUGO CELS (캐나다, 델하우지대학교)	
Prof Ruth Chadwick, Distinguished Research Professor (영국, 카디프대학교)	
Assoc Prof Yann Joly, Research Director of the Centre of Genomics and Policies (캐나다, 몬트리올대학교)	
Prof Won Bok Lee, Ewha Institute for Biomedical Law and Ethics (한국, 이화여자대학교)	
Prof Catherine Mills, Monash Bioethics Centre (호주, 모내시대학교)	

